

월요광장



노경수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광주와 전남의 지방소멸 대응 전략

새해 벽두부터 우울한 소식이다. 지난 6일에 마감된 2024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광주·전남 대학의 대부분 학과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적 추세지만, 지난 해에 비해 미달 학과가 더 늘어나고 경쟁률도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위기가 커지고 있다.

있다는 심리적·물리적 압박감이 강해진다. 이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 강화되고 재생산 본능은 위축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를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저출산 해결에 대한 시급성도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여 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을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이러한 방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대책은 서울로만 집중된 지방 젊은 층의 지향점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지방 거점 대도시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번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언급한 지방 균형발전 정책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추진함에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특정 지역에 선택과 집중하여 거점 대도시로 육성해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다. 결국 광주를 거점 도시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남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인구 유출을 저지하는 매력적이고 특נת한 '딴' 기능을 갖는 강력한

대도시권과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먼저 광주와 전남 전체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전략산업, 산업단지, 인력양성 및 수급, 연구개발 기능(R&D) 등을 묶어서 지역혁신체계(RIS)와 산업클러스터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상호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사·도 간 상호 신뢰는 이러한 구상을 추동하는 엔진이다. 그리고 광주와 인접 시군 지역은 더욱 긴밀한 1일 통근 생활권으로서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도시처럼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광주대도시권(메트로폴리스)을 조성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6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광주가 150만 명의 도시로 급속히 성장했으나, 전남지역에 그 성장 효과가 적정하게 배분되었는가에 대한 전남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향후 광주·전남에 대한 불균형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전남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가 먼저 다가가서 전남이 필요한 것을 살피고 협조하고 양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전남은 지난 해 목포, 순천, 광양, 무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모두가 소멸 위험지역이다. 이 중에서 11개 군은 소멸 위험지수가 0.2 이하인 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이에는 우리 지역의 농촌과 중소도시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 인구 규모마저 붕괴되고 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애 와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1년부터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소멸로 가는 정해진 미래'가 점점 실제 상황으로 채담되고 있다.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인구 이동의 목표점이 서울밖에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너도 나도 서울 소재 대학을 가야하고 지방의 좋은 국립대학을 나와도 서울로 취업하고,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방으로 발령 내면 어떻게든지 다시 서울로 복귀해야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유입된 젊은 사람들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 비혼, 만혼, 무출산 등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초저출산 상태로 빠지게 하였다. 상대가 스펙을 쌓으면 나는 더 많이 쌓아야 살아남을 수

수필의 향기

다시 꿈을...



김향남  
수필가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혹은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을 일컬을 때도 꿈이라고 한다. 꿈을 통해 꾸는 것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다 같이 꿈이라 불린다. 그러나 꿈이 꿈이란 딱히 손에 잡히지는 않으나 분명히 있긴 있는 것, 신기루처럼 있다 없다 하는 것인 모양이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는 꿈은 나도 모르는 나의 가장 은밀하고 사소한 영역인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나의 무의식이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활개를 쳐보는 것일 수도. 하지만 그것은 아무 맥락 없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있는 것들, 즉 경험한 내용의 변형이거나 재편성된 것일 확률이 높다. 낮에 경험한 일들이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속성 때문일까. 오랜 옛날부터 꿈은 사람들의 좋은 애깃거리가 돼주었다. 꿈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며, 안 되는 것이 없으므로 어떤 이야기라도 꾸며낼 수 있었다. 꿈을 빌려 제 안의 욕망을 털어놓을 수도 있었고,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했으며, 앞날을 예견해보기도 했다.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 하루밤 사이를 뚝딱 다녀간 그 꿈들은, 발칙한 욕망에 사로잡힌 이에게 인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수단으로, 또는 세상에 대한 쓴소리를 담거나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표현하는 틀로도 활용되었다.

'삼국유사'의 '조선'이나 '구운몽'의 '성진', 그들의 꿈은 현실에서는 응답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사랑, 부귀, 성공, 재물, 권력 같은 것들. 그것은 분명 본분을 망각한 세속적이고 헛된 욕망이었다. '대한

재기몽'의 주인공, 그가 꾸었던 것도 헛된 것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헛된 꿈을 경계하라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욕망 혹은 꿈의 덧없음을 깨닫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라는 교훈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꼭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예나면 꿈을 꾸는 동안,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하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 상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살아본다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보는 것, 생각대로 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성취이며 매혹일 것인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꿈꾸는 행복, 꿈꾸는 자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진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꿈 없음'이 아닐까. 꿈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꿈마저도 꿀 수 없다는 것. 그것처럼 절망적이고, 그것처럼 막막하고, 그것처럼 쓸쓸한 건 없을 테니까. 꿈마저 없다면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딱딱하고 세상은 또 얼마나 삭막한 것인가. 우리는 그 무엇에도 닿지 못한 채 숨막혀 죽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밤의 휴식과 꿈이라는 숨구멍이다.

TV를 보다가 문득 한 가수의 노래를 들었다.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절규하듯 토해내는 음성이 눈길을 끌고 마음을 움직이고 다시 꿈을 꾸게 하였다. '꿈은 버리고'라고 했지만, 그것을 어찌 버릴 수 있으랴. 그래, 다시 꿈을 꾸자. '쫓고 아프고 위태로운' 밤에는 꿈을 꾸자. 다시 꿈을, 희망을...

어젯밤 꿈이 어땠더라?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몹시 기다리는 일이 있을 때면 으레 꿈을 떠올려보곤 한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꾸고 난 뒤의 기분은 어땠는지에 따라 일의 성패를 가능해보는 버릇 때문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꿈보다 해몽이 좋을 때도 많지만, 나는 꿈과 밀착 관계인 것만은 확실하다.

꿈에는 낮에 보고 들은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황당하고 무질서하고 말도 안 되는 것 투성이다. 꿈은 내 의지와는 별 상관도 없는 듯하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런 꿈이 꾸어지던가? 황금 돼지꿈을 꾸고 싶다고 그게 그렇게 되었다?

꿈은 때면 나를 배반한다. 꿈을 나를 통고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내 원대로 된 적은 기억에 없다. 뜻하지 않게 달콤한 꿈을 꿀 때도 있었다. 가령 이루지 못한 첫사랑을 만나다거나 강물 위에 몸을 누이고 배 띄우듯 두둥실 떠 있는 꿈 같은 거.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꿈은 '잠자는 동안 경험하는 일련의 심리적 현상'을

기고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해야



임영태  
(사)한국섬중앙회 상임이사

개발, 부분별한 개발에 따른 고유의 전통·문화의 소멸 등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지인들과 섬 주민 간 갈등·마찰도 이어져 섬이 가진 공동체가 조금씩 해체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섬을 지키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등 행정당국이 보다 섬세한 정책을 구상하고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집행했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 정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하지만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국토의 가장 끝자리에 자리한 섬은 쇠락과 소멸의 광풍을 가장 먼저 맞으며 거주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은 거주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섬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토의 끝을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섬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의 3500여개 섬, 그리고 그 섬을 지키고 있는 150만명의 주민은 국가 영토의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바다 식량의 생산자, 바다 생태 환경의 보호자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소화하고 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속도서는 바다의 섬, 섬을

둘러 싸고 있는 바다, 섬에서 살고 있는 주민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 국토 관리는 국토부, 환경 및 개발 인허가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마다 관리 주체가 모두 달라 섬에 대해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섬에 대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개발해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반드시 유지·보존해야 할 섬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 수립해 미래세대에 그 가치 그대로를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집행이 지금도 어려운 이유다. 섬 하나 하나는 오랜 역사와 환경, 문화를 가진 보물이며, 어쩌면 우리나라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은 최소한의 권리와 권익을 인정받지 못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거주 환경·민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지만 그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불편한 섬이 살기 좋은 섬으로 바뀌고 섬에서도 육지에 버금가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주민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섬 거주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금, 섬의 발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섬은 대한민국 국가의 영토 경계의 시작이고,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이다. 섬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2024년을 기대한다.

社說

이낙연 탈당 예고...야권 분열이 'DJ 정신' 인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탈당 선언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돌발적인 피습사건으로 속도 조절을 해오다 어제 광주 방문을 계기로 탈당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탈당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탈당의 명분으로 '김대중 정신'을 들었다.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든 정당이든 정치는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 곧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DJ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는 명언을 "정치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며 야전

신수적으로 해석해 자신의 탈당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DJ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젊은 당 신들이 나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며 DJ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당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신은 통합이지 분열이 아닌데도 이 전 대표가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곡해한 것은 평생 민주당과 맞붙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5·18민주묘지에서 무릎 꿇고 광주·전남에 진 빚이 많으며 그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역민에게 빚을 갚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탈당인지 묻고 싶다. 탈당은 자신을 발탁해 준 DJ와 호남인에 대한 배반 행위다.

레이콘업계 가동 중단, 건설 현장 피해 없어야

광주·전남 레이콘 업체들이 전적 가동을 중단하면서 건설 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체들은 레이콘 납품 단가를 놓고 건설사들과 타결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4일 조업을 중단했다. 다행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주말이 끼어 있어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장기간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건설 현장의 조업 자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섬이 기업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콘 업체들의 무리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 피해가 소비자에게 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레이콘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건설업체에 루베(입방미터·1㎡)당 납품 단가를 현재의 9만 5000원에서 1만 2200원 정도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레이콘 원자재인 시멘트 가격이 7~8% 올라 이번 인상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칫 값 급등과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얼마 전 태영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업체는 하루 빨리 만나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건설 현장의 조업 자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조업 정지 조치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레이콘업체가 이번 주 초 공장을 재가동하면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도 무작정 인상 반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나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 었고 제 같은데 벌써 새해도 한 주가 흘렀다. 올해는 육십 간의지 41번째인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다. 십이지 중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바로 용이다. 예로부터 용은 살, 생명을 관장하는 신성한 영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 왕조에서도 용은 왕 또는 왕권을 상징했다. 광개토태왕릉비에는 동명성왕이 황룡을 타고 하늘로 날아갔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신라의 문무왕은 자신이 죽으면 동해의 용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에 따라 경주 대왕암에 묻혔다. 조선 건국의 정

마를, 용이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으로 지은 담양 응용동은 그러한 사례다. 그뿐 아니라 전남도청이 자리한 오희산 자락은 다섯 마리 용이 구슬을 다루고 있는 형국으로 알려져 있다.

용을 매개로 한 사자성어나 고사도 적지 않다. 시작은 좋으나 끝이 흐지부지한 '용두사미(龍頭蛇尾), 힘차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행호보(龍行虎步), 마지막 갈무리를 잘 한다는 뜻의 화룡점정(畫龍點睛) 등은 곧잘 비유되는 말이다.

청룡의 해

올해는 지역 대표인 선량을 뽑는 총선이 있는 해다. 입지자들은 정당성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는 세종의 6대 조 행적을 용을 빌려 칭송한 노래다. 용과 관련된 지명 가운데 전남이 약 25%를 차지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전남도가 갑진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261곳 가운데 약 310곳이 해당했다. 특히 용 지명은 지세나 승천 설화 등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용 머리와 유사하다는 순천 주암면 용두마을과 광양 용머리공원, 뒷산의 형태가 용 꼬리와 흡사한 영암 금정면 용반

올해는 지역 대표인 선량을 뽑는 총선이 있는 해다. 입지자들은 정당성을 노래한 '용비어천가'는 세종의 6대 조 행적을 용을 빌려 칭송한 노래다. 용과 관련된 지명 가운데 전남이 약 25%를 차지한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전남도가 갑진년을 맞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261곳 가운데 약 310곳이 해당했다. 특히 용 지명은 지세나 승천 설화 등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 용 머리와 유사하다는 순천 주암면 용두마을과 광양 용머리공원, 뒷산의 형태가 용 꼬리와 흡사한 영암 금정면 용반

Table with columns for publication info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